

# 유가자율화와 정유산업의 경쟁력

姜光夏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 I. 머리말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공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부의 直·間接規制가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왔다.

정부에 의한 에너지부문의 통제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가지 측면에서 에너지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너지부문의 확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에너지의 량과 종류도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는 사실상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항공유 등에 이어 휘발유 및 등유의 가격을 자율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政策을 경제의 흐름에 맞추어 변경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가격관리란 매우 강력한 수단인 반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은 시장개입의 방법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거나, 단기간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휘발유, 등유 뿐만 아니라 여타의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통제도 점차 줄여 나가야 하며, 가격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석유제품의 수급이 시장 원리에 의해 원활하게 이루어져 국민의 복지가 증대될 수 있고 석유산업도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시켜 나가야 한다.

## II. 가격자율화와 정유산업

휘발유, 등유의 가격이 자율화된 경우에 정유사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냐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격자율화가 이루어졌을 때 예상되는 시장상황에 대해 고찰해 보아야 한다.

유가자율화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유사간의 가격경쟁이 처음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휘발유, 등유의 판매가격이 정부에 의해 설정되었으며, 정유사의 이윤률 역시 규제대상이었기 때문에 정유사간의 경쟁은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가격경쟁에 의한 판매량 확대 노력이 정유사별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유산업은 그 특성상 품질 등의 비가격경쟁보다는 가격경쟁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격인하가 절대적이다.

그런데 정유산업은 장차산업이며, 寡占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인하에 대한 유인과 더불어 가격 및 판매량에 대한 담합에의 유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물론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제한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부의 감독강화 때문에 담합에의 반유인 역시 존재한다.

그렇다면 정유사간의 경쟁은 어떤 형태를 띠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 정유사업은 寡占市場(Oligopoly) 상태에 놓여 있다. 과점시장이란 소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제품이 공급되고 있는 시장으로서 완전경쟁시장이나 독점시장의 경우와는 달리 시장참여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일반이론이 없다. 그것은 그들 중 어느 한 기업의 행동은 경쟁기업의 반응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 오는데, 경쟁기업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응의 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과점상태에서는 경쟁기업의 반응에 대한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는 市場이 不安定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安定的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결론이다.

또 屈折需要曲線理論에서 알 수 있듯이 과점시장에서는 어느 한 기업이 쉽사리 가격을 인하하거나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즉 단기적 이윤극대화보다는 기존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어 가격은 硬直性을 띠게 된다.

한편 과점기업들간에 완전한 담합을 이루어 낼 수 있으면, 상황은 독점시장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되겠지만, 정부의 감시 뿐만 아니라 담합의 내용 및 실천에 따르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완전담합보다는 암묵적 담합형태의 하나인 가격선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가격선도란 어느 한 기업(대체로 시장점유율이 큰 기업)이 가격을 선도적으로 결정하고 다른 기업들은 이에 따르는 형태를 말한다.

以上的 과점이론을 고려할 때, 각 정유사별로 가격경쟁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력이 초기에는 꽤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정유사 모두가 손실을 보게 되는 수준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쟁의 정도는 작아지고 안정

적인 가격 및 시장구조로 정착되어 갈 가능성이 크다.

둘째, 외국정유사의 국내진출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내의 휘발유, 등유의 가격이 담합에 의하든 생산원가의 상승에 의하든 국제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 된다면 외국의 낮은 가격의 제품이 수입되어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輸入業者는 일정 규모의 비축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제약이 있고, 현재의 우리나라 정유사의 생산, 기술수준이 그리 낮지 않고, 석유제품의 성격상 대규모 수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의 정유사가 국내수요의 상당부분을 공급할 가능성은 휘발유와 등유부문에서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그렇지만 수입자율화는 담합에 의한 高價格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수행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의 정유사가 自國의 수급상황에 맞추어 생산원가를 모두 반영치 않은, 즉 변동량만을 충당하는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가격과 큰 차이를 갖는 가격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며, 일시적인 수입물량의 변동에 따른 국내정유사의 재고변동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정유산업의 이윤률은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휘발유의 출고 가격은 가격자율화에 의해 당장 상승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등유의 가격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점과 경유와의 대체관계를 고려할 때 상승압력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제품가격의 상승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원유구입, 생산량조정, 비용절감등을 통하여 생산원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윤률조정조치가 없다면 정유사의 자기자본이윤률은 높아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현상은 정유산업에서의 시설확충을 위한 재투자비용, 적정한 배당을 위한 재원확보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정유사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윤률은 산업의 평균이윤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아직도 가격자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석유제품이 있고, 그것들의 가격결정에서는 정유사의 자기자본

이윤률이 기준이 될 것이므로 휘발유, 등유의 가격자율화에 따른 정유사의 이윤률은 여타제품에 대한 가격결정과 이윤률자체에 대한 정부조정에 크게 의존할 것이 분명하다.

넷째,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자율화에 따라 정유사간 품질경쟁,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역시 향상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담합 등에 의해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든가, 국제시장변화에 따라 가격변동폭이 커진다는, 공급부족상태라든가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厚生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격자율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적은 반면, 逆機能이 크게 나타날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석유제품의 공급이 불안정해진다는, 가격이 지나치게 변동한다는, 높은 이윤추구에 따른 제품별 공급부족이 일어난다는 하는 경우에는 정부당국으로서도 에너지의 공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변화 이외에도 여러가지 상황변화가 예상되지만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해 둔다.

### Ⅲ. 정유산업의 경쟁력

휘발유, 등유의 가격자율화가 지금까지 살펴 본 것과 같은 상황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때, 정유사들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정유사들의 경영전략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경쟁력제고의 측면에 국한하여 접근해 보기로 한다.

가격자율화는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에 의한 가격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점유율은 가격경쟁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각 정유사들의 경쟁력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능력, 즉 원가절감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유산업의 경쟁력제고는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원유구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석유제품의 생산원가에서 원유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원유를 저렴한 가격으로 차지없이 구입한다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가격관리에 있었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도입하더라도 그 혜택을 해당 정유사가 모두 누릴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기업경영의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低價의 원유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先物市場의 활용, 경제적인 비축, 효율적인 도입선 및 도입방법, 유리한 금융, 정확한 환률변동예측등을 통하여 원가절감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상류부문에의 진출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반면, 제품의 가격 인상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의 공동노력이 요망된다.

이와는 반대로 산유국의 하류부문 진출가능성이 합작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유사별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이것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생산의 효율성제고를 통한 원가절감이 요망된다.

이것에는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서 즉 생산량 및 생산시기의 조정, 일반관리의 효율성제고,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한 비용절감이 포함된다.

정유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므로 고정비 부담이 크다. 따라서 가동률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바, 가동률 조정에서 유리한 高地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요변화에 따른 공급의 신축성이 높아야 되고, 이는 중질유분해시설의 규모, 탈황시설여부, 그리고 적정규모의 시설유지에 크게 의존한다.

단기적으로는 가동률을 높여서 비용절감을 이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변화에 맞출 수 있는 신축성 있는 시설의 보유 여부에 따라 원가절감의 능력이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시장전체의 수요는 물론, 개별정유사가 직면하는 수요도 더욱 가격탄력적인 것으로 될 전망이다. 수요예측에 대한 능력과 공급 조절능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수요의 변화 및 제품의 질적 특성의 변화에 따른

정확한 수요예측, 이와 연계된 제품의 생산, 판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경영전략의 수립이 요망된다. 가격자율화에 따라 앞으로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전략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해진다.

셋째, 미가격경쟁력 측면에서 품질향상,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의 공급, 기업이미지제고 등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사제품의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가격자율화 이후에도 제품의 가격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가격이외의 부문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므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결국 문제의 焦點은 지금까지 정부의 통제하에서, 한편으로는 이윤률을 높이지 못하는 제약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의 이윤은 보장되는 위험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경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행동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하루 빨리 기업체질을 새로운 상황에 맞게끔 변화시켜 나가느냐 하는데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에 맞는 새로운 경영전략을 세워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정유사들은 경쟁력제고이외에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격자율화 이후에도 석유제품의 가격 및 공급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급 및 가격의 불안정성은 정유사의 경영에도 어려움을 안겨 주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개입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점에서 모처럼의 시장원리를 지향하는 정책방향이 선회되지 않도록 지나친 이윤추구와 같은 시장교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등유에 대한 수요는 계절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冬節期 공급부족 현상이 일어나거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이 악화되면 정부로서도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은 분명히 자율화와는 반대방향일 것이 확실하다.

한편 정부당국은 과점상태에 있는 정유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아울러 가격경쟁에서 야기될 수 있는 환경관련비용의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기준의 강화 및 감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격자율화에 따른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여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 원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길이며,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우리나라 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 나가는 첩경인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 □산유국동향□

# 소련, OPEC 가입의사 밝혀

소련 석유장관이 소련의 OPEC 가입희망서를 OPEC에 제출했다고 이란國營 IRNA통신을 인용하여 Platt's 紙가 최근 보도하였다. 소련 石油省 차관 드미트리에비치 트츄리코프 "OPEC는 이 제안을 환영할 것이며, OPEC과 소련의 협력의 전문가 혹은

옵저버 수준에서 시작될 것이다. 소련의 OPEC가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련 석유장관은, 「生産 및 市場價格에 관한 비밀사항이 없었더라면 소련은 벌써 가입하였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소련 국영 석유수출기구인 소유즈네프테-엑스포트(Soyuznefte-Export)는 지금까지 OPEC과 공식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인 옵저버를 OPEC에 파견하여 왔다.